진도 전복, 친환경 'ASC 국제 인증'

교육·컨설팅 등 진행 결실
브랜드 인지도 향상 기대

? ASC 인증
지난 2010년 WWF(세계자연기금)와 IDH(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가 공동으로 설립한 제도로 해양자원의 남획과 양식 과밀화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들이 진도 전복의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인증서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 전복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국제 인증을 받아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예상된다.

ASC 인증은 환경관리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까지 보증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진도군은 지난 2019년부터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육, 컨설팅, 심사 등을 진행해 결실을 얻었다.

군은 전복 ASC 국제 인증으로 가격하락, 소비한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국과 일본 등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복 ASC 인증을 받은 진도군 군내면 전복 양식섬 일원은 전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양식장이 적어 바다가 깨끗하고, 냉수대가 흘러 적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수출 단지 목적으로 조성된 전복섬 영어조합법인은 71어가로 구성돼 연간 20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진도군 전복양식단지 중 하나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인증을 계속 추진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친환경 수산물 생산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초의선사 다도 정신 느끼며 힐링

무안군, 내달 5일 초의선사 탄생문화제…헌다례 행사

무안군이 5월5일 초의선사탄생지에서 제236주년 초의선사 탄생문화제를 헌다례(獻茶禮) 행사로 개최한다.

무안군불교사암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식전행사로 초의대선사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의미를 담아 지연스님 등 스님 5명의 승무공연이 펼쳐지며, 헌다례 행사는 육법공양을 비롯해 헌다·헌향·헌화의식과 초의대선사 행장 소개 순으로 진행된다.

2003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초의선사 탄생문화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불교계의 선승이자 한국다도를 중흥시킨 초의선사의 탄생을 기념해 매년 초의선사 탄생일인 음력 4월5일을 전후로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초의선사 탄생지에서 개최된다.

조영희 무안군 관광과장은 "초의선사 탄생문화제를 헌다례로 간소하게 개최하지만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누구나 부담없이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느끼고 즐기며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기 바란다"며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시설물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1997년 시작한 초의선사탄생지 현창사업으로 다성사, 초의생사, 조선차역사박물관, 차교육관, 기념전시관, 일지암, 차체험관 등 다양한 차 체험시설을 건립해 다도순례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 전경.

해남공룡박물관, 내달 5~8일 화석발굴 체험·서커스 등 다채

"오월은 푸르구나, 해남공룡박물관으로 모여라"

해남공룡박물관이 마련한 어린이날 기념 특별행사가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공룡을 아시나요?' 특별기획 전시를 비롯해 공룡박물관 1층 전시실 입구 앞에서 공룡화석발굴체험을 할 수 있다.

조류 체험장에서는 새 모이 주기 행사를 오전, 오후 한 차례씩 마련했다.

야외 잔디광장에서는 버스킹, 서커스·마술쇼 등이 열린다.

유채꽃 단지에서는 해남 전통연 보존회에서 전통연날리기 행사도 선보인다.

천연기념물 394호로 지정된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에는 세계 최대 익룡 발자국(25~30㎝) 등이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우항리 일원은 해안가 5㎞에 이르는 퇴적층을 따라 공룡발자국 등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물 교과서"라며 "어린이날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생활개선회 '탄소중립 실천' 결의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봉사활동 등 의견 나눠

신안군생활개선회가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14개 읍면 임원 6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생활개선회 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을 결의했다. 〈사진〉

이번 회의에선 농업·환경·문화를 앞장서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지역 봉사활동 등 생활개선회 운영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 농업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여성농업인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임원부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부대행사로 군 컬러 마케팅에 걸맞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신안컬러푸드 전시로 농가카페, 퍼플디저트, 농산물가공센터 가공품 등 화려한 색감과 여성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제공으로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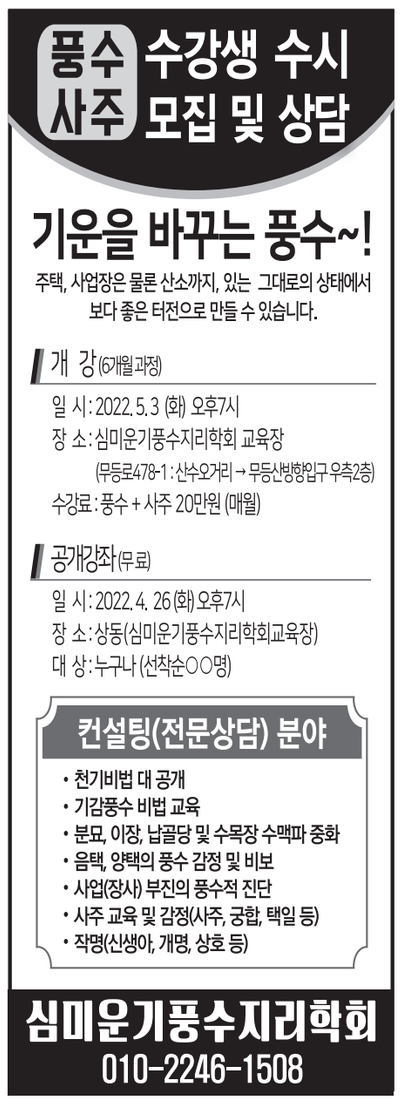
김정화 신안군생활개선회장은 "기후변화로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후세대를 위해 생활속 탄소 저감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교육지원청 '맘-품지원단 멘토 교육'

영광교육지원청 Wee센터가 최근 영광 맘-품지원단 멘토 8명을 대상으로 '맘-품지원단 멘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멘티와의 효과적인 라포 형성 및 심리·정서적 지지방법 습득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전문가 양성'을 주제로 열렸다. 멘토가 갖추어야 할 조건, 멘토링 활동 방법 등 멘토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는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효과적인 공감과 소통 방법 학습하기, 보드게임을 활용한 멘토링 방법 등 멘토와 멘티의 긍정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김춘곤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영광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시는 맘-품지원단 단원이 계시기에 아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긴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심리·정서적 지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탤 것이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